



경상대학교 홍석영 교수

식물상태의 환자와 삶의 질

Patients in Vegetative State and the Quality of Life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 중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전달하는 영양과 수분이다.

식물인간 상태에서의 영양과 수분의 공급은 그것이 명백히 무의미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도덕적 의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테레사 마리 테리 시아보는 미국 플로리다 생 피터스버그에서 사는 여성으로 26세인 1990년, 집에서 의식을 잃은 후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겪었다. 3년 이내에 그녀는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 받았다. 2005년 3월 18일 급식튜브가 세 번째로 제거 되었고 그녀는 13일 만인 2005년 3월 31일 41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200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보건종사자들이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오늘날, 의학 특히 생명보존 장치의 발달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 중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전달하는 영양과 수분이다. 어떤 이는 “그러한 급식은 무의미하며 의무가 아니다”라고 논쟁한다. 다른 사람은 “명백한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급식은 무의미하지도 않고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연자는 후자의 의견이 맞다는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자는 먼저 식물인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 영양과 수분의 공급은 그것이 명백히 무의미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도덕적 의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